

■ 주요 기사

○ 대법,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 일방 해고에 부당해고 판결 (3건)

조선	[땅, 땅... 오늘의 판결] 대법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 해고안돼"
한겨레	대법, 정년 넘긴 기간제 노동자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경향	"기간제 노동자, 정년 지나도 고용지속 기대 땀 해고 못해"

○ 서울시, 근로자 이사제 도입 (2건)

동아	서울시 "올해 비정규직 등 乙의 권익보호"
한경	"근로자 이사제, 13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는 박원순

○ 환노위 삼성전자 청문회 의결 강행 (1건)

중앙	[간추린 뉴스] 환노위 삼성전자 청문회 의결 강행 논란
----	--

■ 주요 칼럼 · 사실

○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2건)

중앙	[사실]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 중요한 대선 공약은 없다
동아	[사실]美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

○ 근로자이사제 관련 (1건)

한경	[사실] 근로자이사제 도입되면 공공개혁 물건너 간다
----	--

○ 4차 산업혁명과 노동개혁 관련 (1건)

한경	새 노동경제학회장 맡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 개혁 틀 제시할 것"
----	---

○ 미세먼지 대책 관련 (1건)

중앙	[강찬수의 에코 사이언스] 중국 빠진 미세먼지 대책의 허망함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땅, 땅... 오늘의 판결] 대법 "정년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일방 해고안돼" A10면
		내용	골프장 근로자 김씨 등 5명은 2011~2013년 각각 정년 퇴임을 해야 하는 나이가 됐지만 업체는 2014년 3월에도 1년짜리 계약을 함. 그러나 2015년 2월 정년 등의 문제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결
중앙	노동	제목	[간추린 뉴스] 환노위 삼성전자 청문회 의결 강행 논란 A18면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피해와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의 부당 노동 강요와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고용 복지	제목	[사설] 청년 일자리 대책만큼 중요한 대선 공약은 없다 A30면
환경	환경	내용	우리 대선주자들도 정규직 귀족 노조의 철밥통만 대변하는 노동단체의 표보다 실업의 고통에 빠져 있는 청년 구하기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제목	[강찬수의 에코 사이언스] 중국 빠진 미세먼지 대책의 허망함 A28면
동아	노동	내용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 꺼끄럽다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의 국제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몽골·일본과 북한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
		제목	서울시 "올해 비정규직 등 乙의 권익보호" A18면
	고용 복지	내용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선언 1주년인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 지난해 2월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근로이사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
		제목	닥쳐온 졸업 '전탈' 불호자는 읍니다 A2면
고용 복지	내용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13일 동아일보 취재진은 졸업식을 앞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10곳의 취업지원기관을 찾았다. 가는 곳마다 취업 실패에 따른 좌절감과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가득	
	제목	[사설]美보다 높은 청년실업률, 일자리도 세금으로 만들 건가 A31면	
고용 복지	내용	민간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 대신 재정을 통한 손쉬운 수단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업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생겨도 모두 집권 후의 문제라는 건가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노동	제목	"근로자 이사제, 13개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는 박원순 29면
		내용	근로자 이사제란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선임해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정책 취지지만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데다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
		제목	새 노동경제학회장 말은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4차 산업혁명 대비 노동개혁 틀 제시할 것" 32면
	노동	내용	조 신임 회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화두로 '산업 4.0'을 꼽았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신기술과 일자리 창출, 근로자 보호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노동법 등도 '산업 4.0'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제목	[사설] 근로자이사제 도입되면 공공개혁 물건너 간다 35면
	고용 복지	내용	한국의 강성 노조는 세계적 화제다. 특하면 분규와 파업인 노조에 경영 참여까지 허용하면 기업경영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이 뻔하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 등 일체의 노동개혁을 저지하려 들 게 뻔하다. 결국 공기업 개혁은 물건너가고 부실경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제목		경기침체·구조조정 '된서리'...제조업 취업자 두달째 감소 10면	
고용 복지	내용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는 357만 5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100명(1.1%) 줄었다. 작년 12월(-0.4%)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겨레	노동	제목	빨리빨리 고객님^^ 죽더라도 갈게요ㅠㅠ 10면
		내용	소비자 편의를 위해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언제부턴가 기업들은 앞다퉈 ‘당일 배송’ 경쟁을 시작했고, 대형마트·커피전문점·면세점 등은 ‘언제라도 오시라’며 ‘24시간·365일·연중무휴’를 내세우고 있다
		제목	장시간 노동자 휴식권 보장법안 시급 10면
	고용복지	내용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은 정기 휴점이나 특별 휴점제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체엔 협력업체를 통해 파견 온 노동자들이 많아 이들과 포괄한 대책을 내놓기가 만만치 않다
		제목	대법, 정년 넘긴 기간제 노동자도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13면
		내용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골프장 기간제 노동자 김아무개(61)씨 등 5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복지	제목	“우리 회사엔 육아휴직 없다” 살벌한 회사엔 120 2면	
	내용	서울시, 직장맘 상담 전용콜 운영. 다산콜로 전화...노무사 10명이 상담. 노무사들 직접 나서 사측과 협상해 50년만에 첫 출산휴가 받아내기도. “노동자에게 보복 않도록 근로감독 절실”	
고용복지	제목	“차기정권 연립정부 불가피...일자리 천국 만들 것” 9면	
	내용	“누가 대통령 되든 여소야대. 개헌 통한 독일식 내각책임제 필요. 도지사때 일자리 74만개 만들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횡포 차단. 성장률 낮아지며 빈곤층 많아져. 국민 기본소득 보장 적극 검토해야”	
경향	노동	제목	“기간제 노동자, 정년 지나도 고용지속 기대 댄 해고 못해” 12면
		내용	기간제 노동자의 정년이 지났어도 고용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일하던 김모씨 등 5명이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

* 금일 매경은 관련 기사 없음.

<끝>